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7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평가 추진 현장점검 거쳐 오는 8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해수부는 올해 최우수공동체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점검단을 구성,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자체에서 추천한 모범공동체 10개소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왼쪽은 군산 비응도, 오른쪽은 양평내수면공동체 점검 모습)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중에 있다. 해수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모범공동체 상위 20%(57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체 평가위원회, 지자체(수산사무소) 공무원 등 2~3명을 1개조로 편성, 총 10개조의 현지 점검단은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지자체 예비평가의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최우수공동체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점검단을 구성,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지자체에서 추천한 모범공동체 10개소에 대한 현지 점검도 마쳤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2017년 자율관리 평가위원회를 개최, 최종적인 등급결정 및 2017년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자체 추천을 받아 최우수공동체 대상에 오른 공동체는 △양평내수면공동체 △서산 중앙공동체 △군산 비응도공동체 △부안 격포공동체 △울산 판지공동체 △통영이동성구획어업공동체 △청주 문의내수면공동체 △통영 옥동산내공동체 △태안 빛개공동체 △신안 인창공동체 등 10개소이다.

한편 올해 지자체평가 등급별 공동체는 총 1,159개소이며, 이 가운데 선진공동체는 61개소, 자립공동체 240개소, 모범공동체 301개소, 협동공동체 515개소, 참여공동체 42개소로 집계됐다.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9월 10일~9월 16일, 노르웨이에서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5박7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의 수산선진국인 노르웨이(오슬로, 베르겐)의 수산업현장을 시찰하는 2017년 제2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노르웨이 연수에는 동강내수면공동체 문묘연 위원장 등 우수공동체 회원 12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는 수산자원 관리방안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3차에 걸쳐 실시된다.

김영춘 장관, 화성 백미리 공동체 방문



7월 1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화성 백미리 공동체를 방문, 김호연 위원장(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 취임 첫 수산분야 현장 방문지로 모범적인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를 방문, 성공 노하우를 보고 받고 어업인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잘 정돈된 숙박시설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백미리 어촌체험마을은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기권의 대표적인 어촌체험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백미리 공동체의 성공 노하우를 널리 전파해 어촌경제가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관리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충주쏘가리등 3개 내수면공동체, 예당공동체 등 방문 교육



순천 무풍공동체 회원들이 동유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전수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은 6월 27일 충주쏘가리한수수산내수면 등 3개 공동체 회원 27명이 충남 예산 예당공동체와 운정내수면공동체를 방문해 모범적인 내수면공동체의 활동상을 견학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운정내수면공동체

공정열 위원장은 “포획한 어류를 공동체 회원들이 공동으로 선별해 판매함으로써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전남 순천 무풍공동체 회원 32명이 보성 동유공동체와 객산공동체를 잇따라 방문해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교육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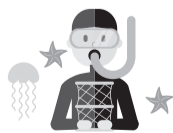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체포제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자율관리공동체 전문분야 컨설팅

전문분야 컨설턴트 활용 ... 경영·기술분야 컨설팅 추진



이효상 경영분야 컨설턴트가 마산연안복합공동체 회원들에게 디자인뱅크를 활용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항복 기술분야 컨설턴트가 순천 무풍공동체 회원들에게 농계 수급방안 및 바지락 어장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전문분야 컨설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수산업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문분야 컨설팅은 자율관리어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가 공동체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효상 경영분야 컨설턴트는 지난 7월 7~8일 양일간 경남 경화복합, 진

해연안자망, 창원남시어선어업, 마산 연안복합어업공동체를 잇따라 방문 해, 공동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전 자상거래 진입을 위한 프로세스 및 지원내용 △디자인뱅크를 활용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방안 △신상품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 규격, 단가 등 경영 관리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이와 함께 이항복 기술분야 컨설턴트는 7월 1일 전남 보성낙지 및 동물 공동체를 방문, 농계 인공종묘생산 과정 및 전남지역 낙지 인공종묘생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수산업은 지역담당 컨설턴트 및 전문분야 컨설턴트를 활용, 자율관리 공동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컨설턴트 비용은 무료이다.

울산 대송어촌계장 등 어업인 4명 '새어업인상' 선정



수협중앙회는 6월 29일 10층 회의실에서 2017년 2분기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어촌 지도자들에게 표창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수협은 이번 '새어업인상'에 주삼조 울산수협 대송어촌계장, 김송기 완도소안수협 비상임이사, 정영철 근해통발수협 조합원, 최세연 서천서부수협 조합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시상자들은 △전북양식 정책보험 홍보 △바닷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노력 △한중협정수역 어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수산물방류사업 적극 동참 등의 사유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김, 아시아 지역 표준 채택

세계 최초 해조류 국제규격 선정 '10년 최초 제안 해수부 노력 결실'



우리나라 김이 아시아 지역의 '표준 김'으로 채택됨으로써 김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김이 아시아 지역의 김 표준으로 채택됐다. 해조류 가운데 국제규격으로 선정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187개 회원국의 식품 기준이다. 국제교역을 할 때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 관련 규격은 아직 채택된 사례가 없다. 김 제품 규격안이 사상 첫 해조류 관련 국제규격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등 3종류에 관한 것이다. 주원료인 원초 외 파래, 감태, 메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선택성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규격안에는 조미김 등 유형별 제품 정의·제조방법, 필수 성분·주요 품질요소,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국제적인 김 소비·교역 증가 추세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코덱스 회의에서 김 제품 규격화를 처음 제안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2019년 채택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애초 목표보다 2년 빠른 올해 총회에서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조미김의 아시아 지역 표준 규격 채택은 김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조미김 수출은 2010년 7095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3691만 달러로 급증했다.

해수부, 제주지역 6개 수협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역 6개 수협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역 6개 수협과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

해수부 서장우 수산정책실 실장과 해당지역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정부기관과 수산물 생산자 단체간의 첫 번째 결실로 주목을 받았다.

수산물 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 2005년 대중성 어종 등 사회적 의미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이력 수산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이력을 확인해 국내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



이 사업은 2008년 정식 도입됐으며 2015년 대형마트, 2016년에는 대형백화점 등 판매처와 우선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왔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김과 굴·참조개·넙치·고등어·갈치 등 46개 품종, 2004톤의 물량에 대해 수산물 이력제를 실시했다.

구입한 상품의 이력을 알기 원하는 소비자는 수산물 이력제 앱을 다운받아 제품에 표기·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생산·가공·유통·판매단계의 전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중점추진품목 취급 수협 중 이력제 제품을 다량 출하하는 부산이나 서귀포, 흑산도 등 지역 수협을 이력제 거점 수협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이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17년째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체 수가 1,159개소, 참여자 어업인이 7만명을 넘어 전체 어가인구 중 56%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에 따른 각종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장청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8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물고기 서식지와 바다환경보전에 기여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규정에 없는 사항을 공동체 규약에 반영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조업금지기간 확대에도 2만명 이상이 참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평가에 50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는 부실공동체가 전체의 68%나 존재하고, 이들 중 상당수의 공동체는 활동내용 기록일지 마저도 평가에 제출하지 않는 등 자율관리어업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자율관리어업의 어두운 현실이다.

공동체 운영시스템에 변화 필요

이들 부실공동체의 대부분은 육성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

율관리어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투자도 수산자원관리 측면에서의 투자가 아닌 단순영리 사업에 치중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의 근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이다.

자율관리어업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 목표를 향해 같은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규 공동체는 물론 오래된 공동체 중에서도 아직 자율관리어업의 의미를 잘 모르는 구성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지정된 공동체에서 사업 시행에 앞서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기존 공동체도 어촌 노령화를 감안해 수시로 반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동체 위원장의 역할 분담이다.



이용한
자율관리어업 전남지역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은 다수의 어업인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어촌계장이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상 자율관리어업 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율관리어업 평가체계는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어장 및 자원관리, 경영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 모든 활동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평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추진하는 일들에 대한 꼼꼼한 기록 없이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때문에 어촌계장의 능력과 열성 여하에 따라 공동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낮은 점수를 받아 부실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실무자이면서 책임자인 어촌계장은 임기가 3년 남짓으로 짧아 자주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어촌계에서 간사나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여 평소에 어촌계장과 함께 자율관

리어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어촌계장 부재시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원장을 임기제 어촌계장이 겸직하지 말고, 어촌계 조직 안에 자율관리공동체를 독립체로 분리 운영하여 어촌계장과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을 따로 지정 운영하는 것도 지속적인 자율관리어업 추진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부실공동체에 제재(制裁) 방안을 검토할 시기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부진공동체 퇴출과 우수공동체 비율 증대로 자율관리어업의 기본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자율관리어업은 불확실한 바다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업 실패로 인해 부실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뚜렷한 사유없이 활동을 중단해 부실공동체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각종 정부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에 낮은 배점을 줌으로써 배제되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어업이 건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수부, 민간과 함께 우리바다 살리기 나선다 제1차 민·관 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민·관 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작년 연근해 어획량이 44년 만에 최저 수준인 93만톤을 기록하는 등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됐다. 해수부 강준석 차관과 이상고 부경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유관기관, 학계, 어업인 단체 등 수산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인의 역할 및 정책 제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됐다.

해남군 통발자율관리공동체 폐통발 수거 청소 실시



해남군 통발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7월 6~7일 연안바다에 방치된 폐통발 및 폐어구 수거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전남 해남군 통발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7월 6~7일 양일간 관내 해역에서 연안바다에 방치된 폐통발 및 폐어구 수거 청소를 실시했다.

해남군통발자율관리공동체 회원 30여명이 어선 22척을 동원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이날 바다청소를 통해 폐통발 및 폐그물 등 약 2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이미옥 공동체 위원장은 "낙지 금어기를 맞아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청소에 적극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발공동체에서는 지난해에도 회원 20여명이 선박 10여척으로 바다청소를 실시해 폐통발 1500개와 폐어구 등 1.5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다.

경남도-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적조 자율방제 협약

적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율방제 협약체결 및 정책토론회



경남도는 6월 27일 적조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어류양식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과 적조 자율방제협약을 맺었다.

경남도는 적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월 27일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100여명의 자율관리 어업인과 적조 자율방제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적조가 발생할 경우 자율적인 적조 방제선 구성과 방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행정기관 중심의 적조 방제에서 자기 어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에 따라 어업인 중심의 방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의

미가 깊다. 이번 협약은 최근 침체기를 맞고 있는 어류양식업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요청한 것으로, 자율관리어업 경남도 연합회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경남도는 적조와 고수온을 대비해 튼튼한 어류 만들기를 위한 활력강화제와 저층해수공급장치 3곳을 시범 공급하고, 안전해역 88ha 지정과 공공방제 장비 18대를 확보했다. 또 황토 37만톤과 황토살포선박 120척을 구축했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출범 ... 제주·남해 불법조업 감시 강화



7월 19일 제주항 2부두에서 열린 남해어업관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발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7월 19일 제주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남해어업관리단 개청식을 열었다.

‘어업의 미래가 바다의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개청식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 원희룡 제주지사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 공연, 홍보 영상 상영, 축사, 유공자 표창,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2·13호 취항식과 발파식, 현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어업관리단이 동해·서해 2

개단 체제로 운영됐다. 남해와 제주 수역은 동해어업관리단 산하 제주어업사무소가 관리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운데 60% 가량이 제주와 남해 수역에서 자행되는 등 남해에서의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을 동·서·남해 3개로 확대 개편했다.

국가지도선 19척, 정원 168명으로 구성된 남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된다.

여름휴가는 어촌에서 ... 수산단체장 현장 캠페인



수협중앙회는 7월 7일 수서역에서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열고 피서를 앞둔 시민들에게 어촌체험의 매력을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수협중앙회장 및 수산계 주요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에게 어촌관광 안내책자와 수산물을 나눠 주며 어촌체험을 적극 권유했다.

고등어·까나리 등 10개 품목 ... FTA 직불금 대상 선정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품목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10개 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8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지원 희망 품목(19개) 및 자체 모니터링 품목(52개) 등 총 61개 품목(중복 품목 제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발동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했다. 민대구는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가량 하락했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증가해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인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2017 귀어귀촌박람회 성료



‘2017년 귀어귀촌 박람회’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aT센

터(서울 양재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종합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가자! 블루오션으로!’라는 주제로 귀어귀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어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공동체 탐방 / 포항 장길리 자율관리공동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진력



정우화 포항 장길리 공동체 위원장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마을에 복합낚시공원이 조성되면서 장길리 자율관리공동체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해 완공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조류의 특성으로 감성돔과 학꽂이를 비롯 다양한 어종이 잡혀 낚시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장길리 공동체에서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 준공한 해상펜션 4동이 복합낚시공원 내에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전경. 지난 2015년 조성된 복합낚시공원이 동해안의 관광명소로 부각되면서 장길리 공동체가 이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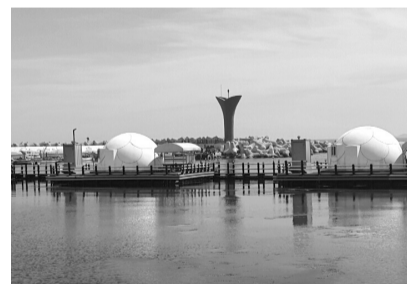
있는 마을어장 소득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연산 전복과 미역으로 유명한 장길리마을은 어업인의 노령화로 생산 및 소득이 점차 감소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율관리어업 초창기인 지난 2001년 공동체를 결성, 자원관리와 어장청소 등에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선진공동체에 진입했다.

장길리 공동체는 그동안 70여명의 어업인들이 63ha의 마을어장에서 전

복, 미역, 성게, 우뚝가사리 등을 채취,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수년전 연이은 적조와 ‘보릿돌 교량’ 공사로 해수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서 전복 등의 생산량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관련 정우화(55) 공동체 위원장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장 환경변화로 전복이 깊은 수심으로 이동해 서식하면서 고령의 해녀들이 채취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이의 해소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올해 장길리 공동체 위원장으로 재



선진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으로 마련한 장길리 해상펜션. 현재 4동이 조성돼 있다.



장길리 공동체 어업인들이 우뚝가사리를 채취해 건조 후 출하하고 있는 모습.

선임된 정 위원장은 ‘명품 장길리 전복’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자원조성 및 관리에 힘을 쏟는 한편 깨끗한 마을조성으로 동해안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복합낚시공원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